

주님의 구상 교회 합봉에 대하여

작성일 : 2010. 10. 12 (화)

작성자 : 주윤애 (전주 스타교회)

* 예수님 말씀 *

나의 섭리사야. 나의 섭리 신부야.
소망 있고 희망찬 역사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육신 되어 행하는 선생이 함께 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니
희망과 소망의 역사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는 이 섭리사를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하느냐.
맞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역사이고
선생이 나의 육신 되어 만든 역사이며
너희 한 명, 한 명의 역사이다.
이 역사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 자는 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는 자이며
아직 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자로구나.
부부가 가정을 꾸리나
신부가 가정을 귀히 보지 않고
청소해주고 도와주는 먼 입장에 서서 산다면

그는 신부가 되지 못하고 파출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는 들어라.

나의 구상에 대해 들어보아라.

그리고 너희도 함께 동참하여라.

자신의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앞에 있는 것만 보는 미련한 자다.

섭리 역사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자다.

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의, 선생의 구상이 되어 지고 있는 이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기도하며

너희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선생의 뜻,

심정을 잘 맞출 수 있게

마음을 맞춰야 한다.

내가 선생을 나의 심정의 대변자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때 나의 이 마음 알고 심정 알고

나에게 의논하고 함께 맞춰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선생뿐이지 않느냐.

선생은 늘 그랬다.

모든 걸 다 내게 맞추고

내가 이 길로 가라하면 바로 ‘아멘’ 하며 갔다.

가다가 내가 다시 방향을 바꿔 저 길로 가자하면
순종하며 ‘아멘’ 하고 지금껏 나와 동행해주었다.

그런데 지금 나간 자들을 보아라.

내 구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섭리사의 방향을 전환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니 너희도 늘 기도하라는 것이다.

나와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나의 심정도 모르고 사랑의 뜻도 모르고

의심만 했던 순간도 있지 않았느냐.

나 예수가 어련히 알아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선생이 어련히 알아서

나의 뜻대로 너희를 인도해주지 않겠느냐.

누구보다도 이 역사 아끼고 목숨 바치는 자가 선생인데

이 역사를 잘 못 인도하겠느냐.

내가 선생 통해 역사하는데

내가 선생을 통해 잘못된 길을 가게 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 예수의 말을 잘 들어보아라.

먼저는 나와 마음을 맞추고 선생과 마음을 맞추어라.

그리고 나의 뜻의 구상에 잘 맞춰 갈 수 있게 기도하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의논하며 나의 역사에 동참하라.

나 예수가 이끌 때에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지금은 2010년 한 해의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하는 때에
접어들었다.

한해의 것을 거두어들일 때라는 것이다.

어서 생명을 거두어들일 때이다.
지금은 더 불을 붙여 뛰어야 될 때이다.
마음을 절대 놓지 말아라.
한 해를 잘 했어도 마지막에 순간 긴장 풀면
너의 마음 놓치고 생명 빼앗긴다.
생명을 살피는데 전념하여라.
합봉 되는 것에만 빠져있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지금 나의 눈에 띄게 뛰라는 것이다.
지금 눈에 띄는 자는
하늘 구상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사명을 주고 크게 쓴다.
지금 눈에 띄지 못한 자는
한 해가 저물기도 전에 빛을 잃어버리고
저물어 버린 자가 된다.

지금이 생명을 거둬들이기 좋은 때이다.
추수의 계절이지 않느냐.
생명을 귀히 보고 끝까지 관리하여라.
이 마지막의 끝자락에 생명을 절대 놓치지 마라.
지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때이니
모두 거두어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하노라.
사랑한다.
나를 믿고 추수하는 자들과 함께 하며 역사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 예수이니라.
사랑한다. 안녕.